

중국 도시문화 연구*

— 충칭을 중심으로

박정희**

【목 차】

1. 도시계획으로 본 충칭 도시의 정위와 도시의 이미지 수립
2. 충칭의 도시 이미지와 향전문화
3. 문화텍스트 · 역사장소 · 도시의 역사
 - 1) 영화 <황귀영웅>이 소환한 역사장소 바이샹지에
 - 2) 바이샹지와 충칭의 개항사 재인식
4. 영상매체 속의 다양한 충칭이미지와 도시문화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각급 정부가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기획을 통해 추진하는 도시 정체성 재구축 전략 그리고 도시의 문화생산물이 교호하거나 충돌하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당대 중국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전환 국면의 일단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고 당대 중국의 표본이라 일컬어지는 도시 충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충칭의 도시계획과 정책, 문화생산물과 도시 경관을 텍스트로 삼아 정부의 기획력이 관계 맺고 실행되는 양상, 정부의 기획에 포섭되지 않는 문화생산물들이 정부의 정책과 관계 맺는 양상들을 비교하여 살핌으로써 중국의 지역과 도시에서 문화정책의 실행과정에서 국가의 힘과 의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폈다. 도시문화는 도시계획, 도시 건축물, 도시경관 등 형식의 물화로 표현된다. 도시속의 공간구조, 건축물의 배치설계, 그 자체는 바로 구체적인 문화부호의 표현이다. 충칭시의 도시계획을 통해 정부의 충칭도시정위와 그 변화, 충칭시를 대표하는 향전문화의 재구성, 역사적 장소로 충칭 지역문화의 소환, 영상매체에서 재구성되는 충칭의 문화경관과 도시문화 등을 고찰하였다.

【키워드】 충칭, 향전문화, 역사적 장소, 개항, 도시경관, 바이샹지에.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3728)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barkxin@hanmail.net)

1. 도시계획으로 본 충칭 도시의 정위와 도시의 이미지 수립

도시는 문화의 용기다. 도시가 조성되고 발전하면서 도시문화 또한 생성된다. “도시는 지역 공동체의 권력과 문화가 극도로 집중된 곳이다.”¹⁾ 도시문화는 문학·영화 같은 (대중)예술, 도시계획과 경관, 음식 등 다양한 양식으로 구현된다. 특히 도시의 공간구조, 건축물의 배치설계 그 자체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문화부호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北京), 티엔진(天津), 상하이(上海)와 더불어 중국 4대 직할시 가운데 하나인 충칭(重慶)시는 중국 해안도시와 내륙도시의 불균등한 발전을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도시로 간주되었다. 내륙도시이면서도 수로 교통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충칭은 경제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기획되어 왔다. 즉 충칭은 국가 경제의 양적 팽창에 있어 중추적인 도시로 간주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문화에 대한 중요성은 쉽게 간과되었다.

충칭시의 도시계획과 변화상을 살펴보면 경제우선주의 정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충칭시 도시계획(1996~2020)」에 따르면 “충칭시는 중국 직할시의 하나로 국가급 역사문화도시, 중국의 중요공업도시, 교통, 통신의 허브이자 무역항구이다. 그리고 서남지역과 창장(長江) 상류의 최대 경제중심도시이며 과학기술, 문화, 교육사업의 중심이다.”²⁾ 이 계획은, 충칭 도시 발전의 목표를 “2020년까지 경제의 발달, 사회의 문명화, 부유한 생활, 아름다운 환경, 풍부한 역사문화전통을 가진 산수도시 특징을 구비한 현대적 도시로 발전”³⁾하는 데 두고 있다.

충칭시는 “개혁개방 이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도시계획을 실행했는데 도시총체계획은 1983년과 1998년에 수립되었다.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신속한 경제발전이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5년 제3차 충칭 도시총체계획의 수정작업을 진행했다.”⁴⁾ 이 “새로운 충칭도시총체계획은 개혁개방 20년, 직할시 10년이라는 더욱 성숙된 조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장(長江) 상류의 경제중심으로 건설하자”⁵⁾는 목표를 내세웠다. 2005년 「충칭시 도시총체계획(重慶市城市总体规划)」(2005~2020年)은 서부대개발과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도시로서 충칭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함으로써 1998년 도시총체계획의 부족분을 보충하려 했다.”⁶⁾

2009년 당중앙(黨中央)·국무원(國務院)은 「충칭시 도시와 농촌의 총괄적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국무원의 의견(國務院關於推進重慶市統籌城鄉改革和發展的若干意見)」⁷⁾에서 충칭

1) 박홍규, 『메트로폴리탄 게릴라 - 홍규의 루이스 머퍼드 일기』, 도서출판 텍스트, 2010, p.194.

2) 「重慶市城市总体规划(1996~2020)」, 『规划师』, 第9期, 广西华蓝设计(集团)有限公司, 2004.09, p.16.

3) 「重慶市城市总体规划(1996~2020)」, 『规划师』, 第9期, 广西华蓝设计(集团)有限公司, 2004.09, p.16.

4) 易峥·陈治刚·何扬, 「重慶市城市总体规划修编:回顾与思考」, 『北京规划建设』, 第1期, 北京城市规划设计研究院, 2005.01, p.76.

5) 蒋勇·刘利·何波, 「面向新时期的城市总体规划——以重慶市为例」, 『城市规划』, 第6期, 中国城市规划学会, 2007.06, p.69.

6) 渝闻, 「国务院审查并原则通过《重慶市城市总体规划》」, 『城市规划通讯』, 第8期, 中国城市规划设计研究院, 2007.04, p.9.

7) 国务院, 「国务院发布《国务院關於推進重慶市統籌城鄉改革和發展的若干意見》」, 『城市规划通讯』, 第3

지역발전의 중요성과 의미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무원은 “2010년 5월 충칭 량장신구(重庆两江新区) 건설을 비준하여 내륙의 중요한 선진 제조업 기지와 현대 서비스업 기지, 창장 상류 금융센터와 혁신센터를 건설함으로써 충칭을 내륙개발을 위한 중요 관문, 시범창구로 건설”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지역 유일의 복합형 물류 허브인 량루춘탄보세구(两路寸滩保税區), 중국 내륙지역 최대 규모의 보세구인 시용종합보세구(西永综合保税區)를 중심으로 충칭의 도시총체계획을 신속하게 실현하여 도시공간의 발전을 추진”⁸⁾하겠다고 천명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배경으로, 충칭시는 「충칭시 도시와 농촌 총체계획(重庆市城乡总体规划)(2007~2020年)」(2011년 수정⁹⁾)에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중국의 중요한 중심도시이자 국가역사문화도시, 창장 상류지역 경제중심(长江上游经济中心), 국가 중요 현대제조업 기지, 서남지역 종합교통허브”¹⁰⁾로 설정했다. 또한, 2014년 전국 양회(两会)¹¹⁾와 12회 전국인대회 2차회의(十二届全国人大二次会议)에서 충칭시는 “충칭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창장 경제벨트의 건설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겠다”¹²⁾는 의견을 제출한다.

이런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급기야 2017년 국무원은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현대 종합 운송체계 발전계획(“十三五”现代综合交通运输体系发展规划)」에서 명확하게 “충칭을 국제적 종합 교통 중심지로 규정했다.”¹³⁾ 충칭은, 중국의 직할시, 국가중심도시, 거대도시, 국제대도시, 창장 상류지역의 경제, 금융, 과학과 혁신, 운송과 상업무역과 물류중심지이다. 그리고 서부대개발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창장 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중요한 연결지점이자 내륙의 개방고지”이다.¹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칭의 도시문화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창장(长江) 상류지역, 중국 내륙의 서남부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충칭은, “산성(山城)의 특색, 강성(江城)의 특색과 자양(滋养)의 특색”¹⁵⁾이라는 3개의 특색을 지닌 도시로 일컬어진다. 가파른 산(山城)과 넓은 강(江城)의 병존이라는 자연 환경,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기후와 음식(滋养)이라는 문화 환경은, 충칭 도시총체계획과 도시건설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고 독특한 도시문화 역시

期, 中国城市规划设计研究院, 2009.02, pp.1-2.

8) 柯善北, 「“两江新区”不是梦《国务院关于推进重庆市统筹城乡改革和发展的若干意见》解读」, 『中华建设』, 第3期, 国家住房和城乡建设部政策研究中心, 2009.03, pp.22-25.

9) 王岳·罗江帆, 「总体规划修改的制度化探索——以重庆市城乡总体规划为例」, 『上海城市规划』, 第3期, 上海市城市规划设计研究院, 2013.06, p.35.

10) 国务院, 「国务院批准重庆市城乡总体规划」, 『城市规划通讯』, 第20期, 中国城市规划设计研究院, 2011.10, p.2.

11)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人民大会堂)에서 개최된 <十二届全国人大二次会议>와 <全国政协十二届二次会议>를 가리킨다.

12) 「重庆团建议:将重庆定位为丝绸之路经济带起点」, 『重庆与世界』, 第4期, 重庆市人民政府外事侨务办公室, 2014.04, pp.12-13.

13) 「重庆被国务院明确定位为国际性综合交通枢纽」, <http://www.cq.gov.cn/today/news/2017/3/18/1490446.shtml> (검색일: 2018.10.10.)

14) 陈文玲, 「一带一路与长江经济带战略构想内涵与战略意义——兼论重庆在两大战略中的定位」, 『中国流通经济』, 第7期, 北京物资学院, 2016.07, p.5.

15) 张焱·张锐·刘进平, 「重庆城市品牌塑造战略及实施策略研究」, 『科技管理研究』, 第8期, 广东省科学学与科技管理研究会, 2008.08, p.103.

충분히 고려되지도 발현되지도 못했다. 이로 인해, 비록 풍부한 도시문화 자원을 갖고 있었지만 동부 도시와 주변의 청두(成都) 등과 비교할 때 충칭의 도시 이미지는 낙후함을 면치 못했고 도시문화는 외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도시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도시 이미지의 수립은 중국 도시발전 가능성을 좌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양호한 도시브랜드 이미지는 도시의 특징과 매력을 전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 거주민의 응집력을 증가시키고 도시정신 문명건설을 촉진하고 관광업의 발전을 선도하여 도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중국의 각 도시들은 알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 각 도시들의 도시정체성 형성 붐 등에 자극 받으면서, 충칭시위원회(重慶市委), 시정부(市政府) 및 관련 간부와 전문가들 역시 도시 이미지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도시 이미지 정위를 다양하게 제기하면서 충칭 이미지 형상의 수립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충칭의 기존 도시 이미지는, 독특하고 다양한 특성들이 잠복된 상태로 내장되어 있지만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미지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시 이미지에 대한 관심의 급증에 걸맞게 중국 학계에서도 도시문화와 도시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충칭의 도시문화·도시 이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충칭이 지닌 국가 경제적·지정학적 위상과 역할은 강조하는 반면, 충칭 도시 이미지 수립의 의미와 작용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충칭의 도시계획과 정책, 문학작품과 영화 등의 문화생산물, 도시 경관을 텍스트로 삼아, 최근 충칭시가 주목하면서 재구성하는 도시 이미지의 내용을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 나아가, 충칭에서 도시의 역사부호와 현대부호가 교차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충칭 도시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읽고자 한다.

2. 충칭의 도시 이미지와 항전문화

현재의 충칭이 가장 부각하고 강조하는 도시 이미지는 항전문화다. 2014년 충칭시정부는 「시전체 문화 시장 개혁 가속화 추진과 문화산업발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全市文化市场改革加快文化产业发展的意见)」¹⁶⁾과 「충칭시 문화산업 촉진규정(重庆市文化产业促进条例)」을 발표하여 문화산업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 심화하여 문화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촉진한다는 문화전략을 수립한다. 여기서 충칭 시정부는 1940년대 임시정부시기의 문화유산인 홍암문화, 항전문화를 부각함으로써, 혁명도시인 홍색(红色)도시, 항전(抗战)문화를 대표하는 국가역사문화도시(国家历史文化名城)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

충칭의 도시문화는 “빠위(巴渝)문화, 홍암(红岩)문화와 항전문화를 중요한 기본구성요소”¹⁷⁾

16) 市文化委, 「重庆市出台《推进文化市场改革加快文化产业发展的意见》」, <http://www.huaxia.com/mlcq/zqsy/bysk/2014/12/4174142.html> (검색일: 2018.01.18.)

17) 胡攀·彭劲松, 「地域文化与重庆城市形象塑造」, 『西部论坛』, 第5期, 重庆工商大学, 2012.09, p.90.

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충칭이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항전문화다. 항전문화는 충칭 도시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 즉 1940년대에서 출발한다. 임시수도(陪都)라는 역사적 사실은, 충칭을 항전이라는 국가사에서 전국 정치 중심지·항일 지휘중심지, 나아가 중국의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역량이 집결된 항전 후방기지로 성격 규정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되면서 충칭 도시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되고 있다. 사실 이 당시 충칭은 중국 정치·군사·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시안사변(西安事变)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두 차례의 합작을 실행했고 저우언라이(周恩来)가 이끄는 중공중앙남방국(中共中央南方局)¹⁸⁾은 충칭 체류 팔로군(八路军) 사무실 명의로 충칭에서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항일민족 통일전선을 중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 1941년 “완난사변(皖南事变)” 이후 국민당이 전제통치를 실행하자 중공중앙남방국을 중심으로 국민당의 전제독재 통치를 반대하고 항일을 외치는 기치가 세워진 도시도 충칭이었다.

항전시기 동안 충칭의 인구 역시 급격히 팽창했다. 8년의 항전기간 동안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문화인과 기타 엘리트 인사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통계에 의하면, 충칭의 인구는 “1937년에 약 47만 명, 1938년 대략 60만 명에 도달했고 1941년에는 70만을 넘었으며, 1943년에는 90만 명, 1945년 초에는 이미 100만 명에 이르면서 외래 이주민이 충칭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¹⁹⁾ 또 다른 자료에서는 충칭은 “1927년 단지 인구 27만 명의 중소도시”였지만 전쟁으로 인한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1945년에는 126만 명의 대형도시로 변했다”고 기록한다.²⁰⁾ 당시 충칭은 인구수 면에서도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빠진(巴金), 라오서(老舍), 시아옌(夏衍), 빙신(冰心), 차오위(曹禺), 아이칭(艾青), 량스취우(梁实秋), 후펑(胡风), 장헌수이(张恨水), 장커지아(臧克家) 등의 작가들이 충칭에서 거주하면서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했다. 교육기관이 이전해오고 문화계 유명인사들이 모여들면서 임시수도 충칭은 근현대문화사, 문학사, 교육사, 영화사, 희극사, 신문사, 출판사, 중외문화교류사에서 절대적인 중심지로 기능했다.²¹⁾

7.7사변 이후인 1937년 11월 20일, 난징(南京)의 국민정부(国民政府)는 「국민정부 충칭으로

18) 孙志慧, 『走进南方局』, 重庆出版社, 2005, pp.18-44. 1939년 중국 전시의 수도 충칭에 건립한 중공중앙남방국(中共中央南方局)은 周恩来, 秦邦宪, 凯丰, 吴克坚, 叶剑英, 董必武 6인이 상임위원이었고 张文彬, 徐特立, 吴玉章, 廖承志, 邓颖超, 刘晓, 高文华이 위원이었으며 서기는 저우언라이(周恩来)였다. 저우언라이가 이끄는 중공중앙남방국(中共中央南方局)은 대치 관계에 있던 국민당과 국공합작하는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1939년 1월 16일 중국공산당이 충칭의 홍암촌(红岩村) 52호에 건립한 기관이었다. 이 기관의 기본 임무는 국공합작을 통하여 항전이라는 국면을 유지하고 항일민족 통일전선을 공고히 하여 항전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었다. 항일전쟁 승리 후 국민정부는 난징으로 환도했는데, 지금 홍암촌에는 당시 유적지가 남아 있다.

19) 代金平·周兴茂·刘晶, 「重庆的地域文化资源」, 『重庆邮电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6期, 重庆邮电大学, 2007.11, p.67.

20) 孙善齐编, 『重睹大后方文坛芳华』, 重庆出版社, 2005, p.4.

21) 2005년 충칭출판사(重庆出版社)에서 항전시기의 충칭 문화를 다룬 『소유항전충칭총서(溯游抗战重庆丛书)』 10권을 출판하였다. 孙善齐编, 『重睹大后方文坛芳华』, 重庆出版社, 2005; 邓又萍, 『陪都溯踪』, 重庆出版社, 2005; 厉华, 『风雨白公馆』, 重庆出版社, 2005; 石曼, 『又见大后方影剧明星』, 重庆出版社, 2005; 杨筱, 『探寻陪都名人旧居』, 重庆出版社, 2005; 孙志慧, 『走进南方局』, 重庆出版社, 2005; 李学政编, 『回味陪都市井生活』, 重庆出版社, 2005; 李金荣·杨筱, 『烽火岁月: 一重庆大轰炸』, 重庆出版社, 2005 등 참고.

의 이주 선언(国民政府移驻重庆宣言)을 선포했고, 1939년 5월 5일 충칭은 행정원직할시(行政院直辖市)로 승격된다. 그리고 1940년 9월 6일 충칭을 임시수도로 정한다. 이후 1946년 5월 5일 난징으로 환도하기까지 8년 5개월 동안 충칭은 난징을 대신해서 전시의 수도가 되었다. 이처럼 1940년대 충칭은 국민정부의 수도로서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또한 충칭은, 2차 세계대전 극동의 전쟁터로 세계사에서 중대한 역사적 공헌을 남긴 도시라고 자부한다. 임시수도 시기의 항전문화는 충칭으로 하여금 세계역사 문화도시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기능했다. 중국의 항일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극동지역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항전 정치중심지로서 국민정부 임시수도 충칭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연합군 사령부 극동작전 지역의 지휘중심지로 국제정치 무대의 초점이 되었다. 충칭은 스스로의 항전문화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끼친 역사적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충칭은 모스크바, 런던과 워싱턴과 같이 세계 반파시즘과 전쟁한 4대 역사 도시가 되어 세계평화에 걸출한 공헌을 하였다”고 자평한다.²²⁾ 항전시기 24개 국가의 대사관이 충칭에 자리잡았는데,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터키, 인도, 스페인 등 19개국의 당시 대사관 건물이 현재에도 보존되어 있다.

항전문화는 충칭시의 대표적인 문화부호로서 도시문화와 도시경관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칭의 항전시기 문화경관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는 중국에서 유일한 중화민족 항일전쟁 승리의 기념탑인 해방비(解放碑), 충칭 항전 유적박물관(重庆抗战遗址博物馆), 홍암촌(红岩村), 충칭 가락산 열사릉원(重庆歌乐山烈士陵园), 홍암 혁명기념관(红岩革命纪念馆), 증가암 50호(曾家岩50号), 충칭 스틸웰(Joseph Stilwell) 박물관(重庆史迪威博物馆), 계원(桂园) 등이 있다. 특정 시기에 형성된 항전문화는 그 독특성을 유지한 채 현재에도 여전한 역사적 영향력을 충칭에서 발휘하고 있다.

임시수도 시기는 현재 충칭의 정체성을 홍암(红岩)문화로 규정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로 소환되었다. 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홍암문화의 주요내용은 외적으로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내적으로 국민당 반동파에 대한 투쟁이었다. 홍암문화의 핵심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야에 국민당이 자즈동(渣滓洞), 바이공관(白公馆) 감옥에 수감한 혁명인사들의 혁명정신이었다. 따라서, 홍암정신이란 중공중앙남방국의 정신, 항일전쟁 시기 형성된 통일전선 제1선(국민당통치 하의 충칭)에서 중국공산당의 혁명투쟁정신을 가리킨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양이언(杨益言), 루오광빈(罗广斌)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홍색 경전소설 『홍암(红岩)』을 창작한다. 이 소설은 실제의 역사적 장소인 충칭의 자즈동(渣滓洞), 바이공관(白公馆), 화룡치아오(化龙桥) 등을 배경으로 <열화중영생(烈火中永生)>²³⁾으로 제작되었다.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중국 도시 사이의 도시 이미지·도시문화 경쟁을 위해 충칭은 항전문화를 도시 이미지·도시문화로 채택하여 부각했다. 뿐만 아니라 임시수도 시기의 항전문화는 충칭의 문화산업에서 끊임없이 변주되면서 재생산되고 있다. 영상문화산업의 경우, 임시수도

22) 任洁, 「陪都抗战文化对重庆城市品牌定位的价值」, 『重庆交通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4期, 重庆交通大学, 2016.08, p.29.

23) 水华, <烈火中永生>, 1965. 이 영화는 공산당과 진보지식인에 대한 국민당의 억압, 그리고 체포되어 감옥에서 희생되지만 변절하지 않는 장지에(江姐)와 충칭 지하당 조직의 정신을 그렸다.

시기 충칭을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는 최근에도 많이 제작되어 상영되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런 종류의 영화와 드라마는 임시수도 항전문화를 중심으로 충칭 도시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구축·전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江姐>(2002)²⁴⁾를, 드라마로는 <毛人凤发出密杀令(8集)>(2004), <烈火红岩(32集)>(2009), <江姐(30集)>(2010), <追捕渣滓洞刽子手(34集)>(2012), <雾都(36集)>(2012)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제13차 5개년 계획 (2016-2020)문화발전계획”에 호응하여 충칭 시정부는 <충칭시 제13차 5개년 문화발전계획(重庆市“十三五”文化发展规划)>(2015)에서 문화산업을 중심산업으로 문화예술 창작을 격려하고 항일전쟁시기를 기념하는 충칭 항전 유적박물관(重庆抗战遗址博物馆), 황산 임시수도 유적 진열관(黄山陪都遗迹陈列馆) 등의 항전문화유산 보호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천명한다. 충칭 시정부는 충칭의 문화정체성이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 항일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충칭의 항일문화를 특별히 부각함으로써 충칭의 문화 영향력을 제고하려고 했다. ‘중국 인민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²⁵⁾을 기념해 2015년 주선울영화 <카이로(Cairo)선언(开罗宣言)>(2015)²⁶⁾과 <대공습(大轰炸)>(2018)²⁷⁾이 제작되었다. 카이로 회담 전후의 세계정세를 다룬 영화 <카이로 선언>은 충칭 민귀지에(民国街), 충칭 스틸웰 박물관, 송칭링(宋庆龄)고택 등의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았다. 특히 이 영화는 카이로 회담에 대한 마오쩌둥(毛泽东)의 지지를 왜곡된 방식으로 부각하기도 했다.²⁸⁾ 이 주선울 영화는 “현재 많은 영화 중에서 역사가관이 정확하고 태도가 엄숙하며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²⁹⁾, “역사의 중요한 시각을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시각, 글로벌적 시야로 1943년 전후 즉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중대한 역사사건과 중요인물을 다층적이고 다각도로 영화로 옮겨 관중으로 하여금 진실한 역사와 사건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계몽과 교육의 효과를 얻은”³⁰⁾ 작품으로 고평되었다. 그리고 영화 <대공습(大轰炸)>(2018)은 1938년 2월부터 1944년 12월까지 일본의 연속적인 무차별 폭격이 빚은 ‘충칭 대공습’을 다룬다.³¹⁾ 이

24) 张元, <江姐>, 2002.

25) 王硕, 「中国确定一批重点影视作品等纪念抗战胜利70周年」, <http://www.chinanews.com/gn/2015/07-06/7386665.shtml> (검색일: 2018.01.16.) 2015년 중국인민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활동으로 <百团大战>, <根据地>, <战火中的芭蕾>, <诱狼>, <开罗宣言> 등 10부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巨浪>, <黄河在咆哮>, <吉鸿昌> 등 12부의 드라마, <抗战史上的今天>, <大抗战>, <1937·南京记忆>, <砥柱中流: 伟大的敌后抗战>, <台儿庄1938> 등 다큐멘터리 20부가 만들어졌다.

26) 刘星·胡明刚·温德光, <开罗宣言>, 2015.

27) 萧锋, <대공습(大轰炸)>, 2018.

28) <카이로 선언> 영화 포스터는 실제로 카이로 선언에 참가한 장제스(蒋介石) 대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마오쩌둥을 실어 2015년 영화개봉을 앞두고 논란을 일으켰다. 마오쩌둥,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을 표지 인물로 내세웠지만, 당시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회담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Jamesleng, 「电影《开罗宣言》背后隐藏的主旋律尴尬」, <http://ent.qq.com/a/20150815/020796.htm> (검색일: 2018.01.16.)

29) 王茵·鲁昱晖, 「主旋律影片《开罗宣言》叙事分析」, 『声屏世界』, 第10期, 江西省广播电视学会·江西人民广播电台, 2016.10, p38.

30) 肖江, 「再现历史的重要时刻」, 『文艺报』, 中国作家协会, 2015.08.31.

31) 黄军·王奕懿, 「三峡博物馆打造历史半景画“重现”重庆大轰炸场景」, http://cq.cqnews.net/html/2014-09/03/content_31882839.htm (검색일: 2018.01.29.) 충칭시 위중구(渝中区)에 위치한 충칭 중국 삼사박물관(重庆中国三峡博物馆)에서는 충칭대공습의 장면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다.

들 영상물들은 기념적인 장소를 통한 장소정치와 주선율 서사를 결합함으로써 충칭의 혁명정신 재강화³²⁾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의 실재화에도 봉사한다.

위의 영상물들이 대부분 중앙정부, 시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면,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한 충칭 관련 서사물 또한 생산되기도 했다. 황하오원(況浩文)의 『수놓은 신발(一双绣花鞋)』³³⁾은 작가가 1950년대 초 서남공안부(西南公安部)에서 겪은 대간첩작전의 경험을 소설로 창작한 것이다. 소설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산성(山城) 충칭을 폭파할 요량으로 폭탄을 묻어두고 후퇴하려는 국민당 간부·잔존세력과 공산당의 싸움을 그렸다. 이 소설은 문혁(文革)시기 필사본만 10여 종류에 달할 정도로 많은 독자층을 거느렸다. 소설은 영화 <霧都茫茫>(1980)³⁴⁾뿐만 아니라 연극, 쓰촨극(川劇) 등으로도 개작·공연되었다. 그리고 동명의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방영되었는데, 특정 시대의 특수한 기억이 드라마로 재현되면서 당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충칭에서 촬영된 영화와 드라마는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 항전시기 임시수도였던 충칭의 도시면모를 재조명했다. 영상매체를 통해 재구성된 항전문화·홍암문화는 8년의 항일전쟁 시기 동안 형성된 용감한 투쟁정신으로 예찬되었다.

이처럼 현재 항전시기 문화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항일과 홍암정신이다. 당시 많은 문화계 인사들이 충칭에서 왕성한 예술문화 활동을 벌였지만, 그 시기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문화텍스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충칭이 항전시기의 충칭을 재현하는 방식도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다. 임시수도 시기 충칭 문인의 생활과 경험에 대한 기록은 주선율의 시선 아래 배제되거나 아주 간략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일화에 대한 관심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빠진은 『추운 밤(寒夜)』를 통해 당시 충칭의 생활을 그렸으며,³⁵⁾ 스만(石曼)은 항일 대후방(大后方)의 영화와 연극에 대한 저서 『又见大后方影剧明星』³⁶⁾을 통해 당시 영화계와 연극계의 사람과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항전 8년 동안 충칭의 영화시장은 전시의 임시수도와 전국의 예술문화중심으로 아주 번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충칭영화 발전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하지만, 충칭이 이 시기를 회고하는 방식은 항전과 홍암정신이라는 단일한 시선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충칭 영상지(老重庆影像志)』 총서³⁷⁾의 출판은 충칭인들이 계속 과거를 새로운 시선으로 소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준다. 『구충칭 영상지』는 충칭 지역문화의 특색을 옛 풍습(老风尚), 오랜 직업(老行当), 고지폐(老钱票), 오래된 공문서(老档案), 옛 광고(老广告), 고지도(老地图), 오랜 부두(老码头), 오랜 거리(老街巷), 고가(老房子), 오래된 성문(老城门) 등의 다양한 구성과 시각으로 제시한다. 『구충칭 영상지』는 서문에서 “충칭은 창장상류 경제중심으로 건설되었는데 이에 상응하는 도시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충칭

32) 徐大文, 「情感的纯真伦理的化道人性的高昂——评主旋律电视剧《雾都》」, 『视听』, 第6期, 广西人民广播电台·广西电视台, 2015.06, pp.72-73.

33) 况浩文, 『一双绣花鞋』, 重庆出版社, 2002.

34) 张波, <雾都茫茫>, 1980.

35) 孙善齐编, 『重睹大后方文坛芳华』, 重庆出版社, 2005, pp.20-23.

36) 石曼, 『又见大后方影剧明星』, 重庆出版社, 2005, pp.2-99.

37) 『老风尚』, 『老钱票』, 『老广告』, 『老码头』, 『老房子』 등의 『老重庆影像志』 총서가 2007년 重庆出版社에서 출판됨.

의 역사와 변천을 살펴보고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자는 목표로 충서를 출판한다”³⁸⁾고 발간 취지를 설명한다. 특히 충서의 『옛 광고(老广告)』, 『옛 풍습(老风尚)』에서는 “충칭의 민간풍습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충칭이 임시수도가 된 이후 각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 충칭시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를 다룬다. 특히 이 시기 충칭은 상하이, 난징처럼 현대 도시로 변했다.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전통 지역문화가 변화되는 항전시기 충칭의 생활과 풍습들을 소개한다.”³⁹⁾

3. 문화텍스트 · 역사장소 · 도시의 역사

1) 영화 <화궈영웅>이 소환한 역사장소 바이샹지에

도시를 텍스트로 읽어낸 루이스 머퍼드(L. Mumford)는 『역사 속의 도시』에서 도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시의 역사를 꼽았다. 그는 “긴 역사의 시발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향한 대담한 도약을 위해 필요한 힘을 우리들 자신의 내부에서 찾을 수 없다”⁴⁰⁾고 전제하면서 도시의 역사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양한 시대와 규모의 공간들이 혼재된 현대 도시에서 역사적 장소는 도시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오늘날 같이 변화에 민감한 시대일수록 역사적 장소는 더욱 특별한 장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많은 영화들이 충칭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충칭의 역사적 장소를 부각시키면서 충칭의 생활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부각하는 영화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충칭의 역사적 장소와 장소성에 주목하는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양칭(杨庆)의 영화 <화궈영웅(火锅英雄)>⁴¹⁾이 그 예이다. 이 영화는 충칭의 역사적 장소 중 바이샹지에(白象街)를 적극 소환한다. 많은 영화인들이 충칭을 배경으로 영상을 만들었지만 바이샹지에는 이 영화들이 그냥 지나친 장소였다. 영화 <화궈영웅>은 바이샹지예를 매개로 충칭 특색의 문화부호를 포착하고 충칭 역사문화의 장소 기억을 회복시킨다. <화궈영웅>은 유형과 무형, 역사와 현대, 유동적이거나 정형화된 부호를 유기적으로 조합시켜 충칭의 특징을 재현하는 동시에 청춘의 활력이 충만한 매력을 관중에게 전시한다. 그리고 충칭문화와 충칭인의 열정적인 기질도 충분히 표현함으로써 충칭 지역문화의 특징을 생동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동안 많은 영상물이 충칭을 배경으로 제작되지만 충칭의 지역문화에 관한 영상서사로 작품성과 현실성을 두루 갖춘 작품은 드물었다. 장밍(章明)의 <안녕, 충칭(晚安, 重庆)>(1999), 장지아루이(章家瑞)의 <미성(迷城)>(2015)에서 충칭은 인물들의 행위와 영화서사를 위한 공간적 배경으로만 소비되면서 허구화되었다. 지아장커(贾樟柯)의 <스틸라이프(三峡好人)>(2

38) 徐康, 『老风尚』, 重庆出版社, 2007, p.1.

39) 위의 책, p.158.

40) 루이스 머퍼드, 김영기 역, 『역사 속의 도시』, 명보문화사, 1990, p.1.

41) 杨庆, <火锅英雄>, 2016.

006)는 산사(三峡)댐 이주민과 농민에 카메라의 시각과 초점을 맞추으로써 충칭의 도시문화적 특성과 충칭인들의 정신을 심도 깊고 구체적으로 담는 데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양칭 감독의 <회귀영웅>은 충칭의 도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재현하면서 도시의 문화적 특성과 정신을 담아내고 있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양칭은 충칭 출신이다. 충칭에 익숙했던 그는 이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적 부호와 소인물의 영웅적 이야기를 배합하여 충칭과 충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상화하면서 충칭의 이미지를 구성해냈다. 영화가 차용한 충칭의 문화부호는 회귀, 산청(山城)맥주, 고량주 장샤오바이(江小白), 충칭 방언 등이다. 회귀(火锅)는 오랜 기간 동안 계승된 충칭의 중요한 음식인데, 이 영화 역시 회귀를 충칭의 대표적인 문화부호로 선택한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회귀의 매운 열기를 관중에게 느끼게 하는 장면이 영화 전체를 관통한다. 우정, 영웅심리, 호방함과 소탈함이라는 충칭인의 기질과 정서가 회귀를 통해 부각된다. 또한 영화는 충칭을 대표하는 맥주 브랜드인 산청맥주와 고량주인 장샤오바이 등도 충칭을 대표하는 부호로 사용하며, 충칭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충칭 특색을 부각하는 동시에 영화가 충칭인의 스토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영화는 충칭의 역사적 장소와 현대적 문화부호를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결합한다. 충칭의 경전철은 고층 빌딩사이를 통과하기도 하고 산들과 자링장(嘉陵江)을 휘감아 관통하면서 충칭도시의 입체감을 부각한다. 특히 경전철 1호선 2km의 지하도는, 역사 유적지인 방공호를 개조한 것인 동시에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이 조우하는 공간이다. 영화는 역사적 장소인 방공호⁴²⁾와 현재의 회귀를 대체할 수 없는 충칭의 역사와 현대 문화부호로, 그리고 충칭인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재현한다. 그리하여,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충칭의 역사적 장소가 현대 도시문화와 교호하면서 현재적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양상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있다.

영화 <회귀영웅>에는 회귀, 산청맥주, 장샤오바이, 충칭 방언, 역사와 현대를 잇고 있는 방공호, 창장삭도, 연위루(烟雨路), 강한 개성을 가진 충칭의 젊은이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도시 충칭이다. 그리고 이 주인공을 표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부호·공간은 바이샹지이다. 영화에서 바이샹지에는 충칭의 역사 변천과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공간이다. 영화는 바이샹지이라는 역사적 장소를 통해 충칭의 근현대사를 소환해낸다.

송(宋), 원(元), 명(明), 청(淸), 민국(民國)의 8백여 년 동안 충칭의 행정중심지는 시종 바이샹지에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이샹지에는 몽골과의 전쟁시기엔 군사중심지였으며 19세기 충칭 개항시기에는 물자집산의 중심지로 변화한 상업지역이자 신문사 등이 있던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금융중심지이자 상류층의 거주지이기도 했다. “민국시기 바이샹지에는 충칭의 월가로 불렸다. 당시 바이샹지에는 많은 외국상점들도 들어서 있었고 『신촉보(新蜀報)』, 『유보(渝報)』 등의 신문사, 서남실업빌딩(西南实业大厦) 등 문화단체들이 자리잡아 문화계·정치

42) 罗渝, 『失踪的上清寺』, 重庆出版社, 2008. 역시 충칭의 방공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소설은 충칭에는 크고 작은 방공호가 산재해 있는데 그 역사는 3천여 년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방공호의 시작은 멀리 진(秦)대까지 거슬러 오른다. 당시 강주태수(江州太守) 즉 현재의 충칭시장이었었던 장의(张仪)는 충칭 최초의 성곽을 쌓으면서 지하도에 많은 보물창고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공호의 가까운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에 닿는다. 당시 임시수도였던 충칭에 대폭격이 자주 있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판 방공호가 충칭 곳곳에 남아 있다.

계·군사계 등 각계의 인사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다.”⁴³⁾ 이곳은 충칭 원도심의 중심지로 충칭의 특색이 가장 집중된 곳인 셈이다.

“현재 바이샹지에는 유럽 문예부흥시기 바로크 양식의 건축군이 남아 있다.”⁴⁴⁾ 서양 석조 건축군이 늘어선 경관뿐만 아니라 청(靑)말부터 민국시기까지 백여 년 동안의 건축물과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이샹지에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대표적인 건축군으로는 충칭약재공회(重庆药材公会), 사립흥화소학(私立兴华小学), 복봉거(卜凤居), 대청우체국(大清邮局), 세관감시본부(海关监督总署), 충칭 세관 사무소 옛터(重庆海关办事处旧址), 왕전태호(汪全泰号), 산서회관(山西会馆) 등이 있는데, 거의 허물어졌거나 새롭게 보수한 곳도 있지만 아직도 흐릿하게 남아 있는 상호들을 통해 바이샹지에의 변화했던 과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946년 국민정부(国民政府)가 <전시 수도 10년 건설 계획초안(陪都十年建设计划草案)>⁴⁵⁾을 발표하면서 충칭의 경제 중심은 도시의 하반구(下半城)에서 상반구(上半城)로 이동하게 되었다. 바이샹지에는 충칭 하반구에서도 가장 변화한 곳이었고 8백여 년의 역사문화가 축적되어 있는 곳이었다. 상반구가 새로이 건설되고 발전함에 따라 바이샹지에는 점차 퇴락하게 되면서 화려했던 명성도 함께 잃게 되었다. 특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갑작스럽게 퇴락되어 퇴락과 궁핍의 온상이 되었다. 현재 바이샹지에는 서민들이 회귀를 먹고 술을 마시는 서민들의 생활구역이 되었다. 영화에서 바이샹지에는, 주인공 류보(刘波)와 그 친구들이 방공호에 개업한 회귀점이 장사가 잘 안되자 이윤을 남기고 팔기 위해 점포를 넓히는 방공호 확장공사를 하다가 주변 은행의 금고벽을 뚫게 되는 황당한 공간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충칭은 바이샹지에 재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충칭시정부는 바이샹지에 및 하반구의 역사문화유적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검토하였고”⁴⁶⁾, “2015년부터 충칭의 원도심 위중구(渝中区) 역사문화거리 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하반구의 역사건축군 보수와 복원하여 관광화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⁴⁷⁾

2) 바이샹지에와 충칭의 개항사 재인식

충칭의 최근 문화생산물들은 충칭의 도시문화와 도시 이미지를 역사로부터 호출해내기 시작했다. 영화 <회귀영웅>이 현재와 교호하는 역사적 장소로서의 바이샹지를 특별히 주목했다면, 소설 『개항』은 바이샹지에의 역사적 장소성을 각인하게 된 결정적 계기인 충칭 개항의 양가적 의미를 다루었다.

바이샹지에의 역사적 기억 각인과 충칭 개항은 1890년 영국이 엔타이조약(烟台条约续增专

43) 力云·夏小茜, 「白象街是谁在记忆中老去」, 『重庆与世界』, 第6期, 重庆市人民政府外事侨务办公室, 2006.06, pp.46-51.

44) 위의 글 p.49.

45) 任竞, 「六十七年前想建怎样的重庆城——解读《陪都十年建设计划草案》」, 『红岩春秋』, 第4期, 中共重庆市委党史研究室, 2013.07, pp.51-55.

46) 龙彬·屈仰, 『2010年建筑环境科学与技术国际学术会议论文集』, 东南大学出版社, 2010, pp.767-772.

47) 陈桃, 「重塑白象街 激活尘封中重庆昔日CBD」, 『新浪房产』, 2015.04.23.

條)의 통과로 충칭 개항의 특권을 획득하면서 시작되었다. 1891년 건립된 충칭세관은 충칭 개항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는 충칭이 중국 쓰촨성(四川省)과 서남지역에 대한 서구 열강의 침략 거점지로 변모함을 의미했다. 나아가 개항으로 인해, 충칭은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외부세계와 연결되었고 서구의 현대적 요소가 유입되면서 충칭의 도시 근대화가 촉진되었다. 1891년 3월 1일 개항 이후 충칭에는 각국의 영사관이 들어섰고 외국상사와 회사가 개설되었으며 공장이 건설되었다. 충칭의 오랜 거리로 왕룽먼(望龙门)과 타이핑먼(太平门) 사이에 위치해 있던 바이샹지에는 충칭에서 가장 일찍 유선전보국과 대청우체국(大清郵局)이 세워졌고 약재공회, 미국의 대래공사(美国大来公司)가 자리잡았다. “특히 1891년 충칭 개항 이후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이곳에서 외국상점을 개설하면서 당시의 가장 성행한 금융가를 형성했다.”⁴⁸⁾

1891년 4월 1일 영국은 충칭에 정식으로 총영사관을 설립했는데, 영국인이 충칭에 들어오게 되면서 해상운수업과 도시 근대화가 시작되어 충칭은 중국 서남지역에서 가장 먼저 개항한 지역이 되었다. 충칭의 개항은 영국을 수반으로 한 서구가 중국 서부지역의 대문을 열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충칭은 창장(长江) 상류지역에서 처음 현대화도시로 진입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창장 상류에서 경제를 이끄는 도시로 그 위상을 갖게 되었다.

개항 전후 충칭의 개항사, 부두문화, 지역문화는 충칭 출신 작가 왕위(王雨)⁴⁹⁾의 장편소설 『개항(开埠)』⁵⁰⁾에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소설은 충칭시와의 계약에 의해 완성된 작품이었으며, 충칭시 제14회 정신문명 건설의 “좋은 도서(五个一工程)”상을 받기도 했다.⁵¹⁾ 『개항』은 도시문화의 특성을 풍성하게 표현하면서 충칭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척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충칭의 개항사를 그린 만큼, 근대중국문명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충칭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기존의 시각·국가적 시각에서 보자면 개항의 역사는 진부한 제재로 주권 상실·국위 실추라는 굴욕사이지만, 현재적·지역적 시각에서 보면 충칭 개항은 양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충칭 개항은 충칭이 근대문명을 열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소설 『개항』은 개항의 양면성을 놓치지 않았다. 소설은, 개항으로 인해 중국은 반식민지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충칭은 고립된 상태를 벗어나 점차 개방·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개항으로 인해 충칭은 외부세계와 연결되었고 서구의 현대적인 요소들이 충칭에 유입되면서 충칭의 근대화가 촉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충칭은 중국 서남의 편벽된 곳에 위치하지만 도시화의 정도면에서 비교적 선도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도 개항이라는 특수한 도시사에 그 연원이 있다고 설명한다. 소설은,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개항의 의미를 현대적·지역적 입장에서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는 셈이

48) 周昕欣·晓晖, 「千秋白象街」, 『重庆与世界』, 第4期, 重庆市人民政府外事侨务办公室, 2005.04, pp.62-63.

49) 왕위(王雨)의 작품 대부분은 충칭의 역사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데, 작품으로 『填四川』, 『开埠』, 『水龙』, 『飞越太平洋』, 『血缘』, 『车神』, 『长河魂』 등이 있다.

50) 王雨, 『开埠』, 重庆出版社, 2014.

51) 余俊汎, 「王雨: 用文学之笔历史地回顾历史」, 『重庆作家网』, 2017.07.21. 뿐만 아니라, 충칭시 룡창현 위원회 행정부(重庆市荣昌县委县政府), 충칭시 작가협회(重庆市作家协会), 인문문학출판사(人民文学出版社), 충칭출판그룹·충칭출판사는 2015년 4월 28일 『개항』 작품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작품에 주목을 유도하기도 했다. 邓黎明, 「王雨长篇小说《开埠》举行作品研讨会」, <http://www.chinawriter.com.cn/news/2015/2015-05-05/241340.html> (검색일: 2018.01.12.)

다.

왕위는 소설 창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개항의 역사는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제2차 대외개방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소설에서 묘사한 많은 충돌과 모순들이 지금 다시 출현하고 있다. 『개항』의 창작 의도는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해석하고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다.”⁵²⁾

이러한 거대 시각과 더불어 『개항』은 충칭 거주민의 일상과 충칭 경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묘사한다. 소설은 청말민초(清末民初) 충칭 부두를 배경으로 삼아 충칭의 연혁, 이주문화, 비밀결사조직, 방언, 민속풍속 등 충칭 지역문화를 성실하게 재현했다. 충칭은 자령강(嘉陵江)과 창장(長江)이 휘감으며 만나는 위중(渝中)반도(半島)를 중심으로 했기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선박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이에 따라 특색 있는 부두문화가 형성되었다. 충칭의 부두문화를 대표하는 물리적 표상체는 차오편먼(朝天门), 왕룽먼(望龙门), 통위엔먼(通远门), 린강먼(临江门) 같은 17개 성문이었다. 성문마다 부두가 있고 이 공간을 중심으로 충칭인의 거주지역과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충칭인의 생활사가 시작되었다. 소설은 성문과 부두를 배경으로 충칭인들의 삶을 짚조각하듯 그려내고 있다.

『개항』은 왕위의 또 다른 장편소설 『전사천(填四川)』⁵³⁾으로 이어진다. 왕위는 『전사천』을 통해 충칭 이민사를 다룬다. 『전사천』의 주인공 닝시(宁徙)는 『개항』의 주인공 닝청중(宁承忠)의 고조모이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이민자의 후예들이다. 소설은 충칭 하반구의 역사적 장소들을 훑는다. 해방비가 충칭 상반구(上半城)를 대표하는 현대의 역사적 장소라면, 하반구(下半城)의 역사적 장소는 스빠티(十八梯), 바이상지에(白象街), 약재공회(药材公会), 고성문(古城门), 호광회관(湖广会馆) 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호광회관(湖广会馆)은 중국 역사에서 “호광이 사천을 보태다(湖广填四川)”⁵⁴⁾로 대변되는 이민 붐과 이민자의 생활을 상징하는 건축군이다. 소설은 이민문화, 부두문화, 개항 등 도시의 역사가 응집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충칭 위중구(渝中区) 하반구의 역사적 장소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 했다.

왕위는 충칭의 대문이라 할 수 있는 차오편먼(朝天门)이 가지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차오편먼은 원래 다양한 문화가 진입하는 중요한 곳”으로 “국토를 수호하는 폐관의 문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의 문이다. 역사의 급변하는 정세, 시대의 흐름이 그 개폐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⁵⁵⁾

충칭 개항사에 대한 재인식과 비중 증가는 현재 충칭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창장 경제벨트의 건설에서 중요한 요충지로 기능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

52) 余俊汎, 「王雨：用文学之笔历史地回顾历史」, 『重庆作家网』, 2017.07.21.

53) 王雨의 장편소설 『填四川』은 동명의 TV드라마 <填四川>(陆涛 감독, 30集2015)으로 제작되어 상영되었다.

54) 후베이성과 광둥성이 쓰촨성에 보태다(湖广填四川)라는 말은 후베이성과 광둥성의 주민들이 쓰촨성으로 이주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청대의 발생한 대규모의 이민을 가리킨다. 후원말명초(元末明初)와 명말청초(明末清初)에 쓰촨(四川)성이 전쟁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자 중앙과 지방 각급의 관청에서는 일련의 이민 정책을 실시했다. 이민자 중에는 후베이와 광둥성(湖广)의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베이(湖北), 장시(江西), 푸지엔(福建), 광시(广西) 등 10여 개 성의 주민들도 이민 행렬에 참여했다.

55) 涂源·李晟, 「自古就是开放之门朝天门重庆国际化的起点」, 『重庆晨报』, 重庆日报报业集团, 2016.05.19.

같은 사실은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이 “충칭을 국제적 종합 교통 중심지로 규정”⁵⁶⁾ 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충칭의 영화와 소설 등의 문화생산물이 개항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충칭 원도심의 역사적 장소를 재발견해내는 것은, 역사적 장소와 역사문화부호를 재인식함으로써 충칭을 풍부한 문화도시로 재설정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현재의 교차를 통해 현재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영상매체 속의 다양한 충칭이미지와 도시문화

케이블카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볼 때마다 나는 매번 강렬하게 느낀다. 도시는 모체(母體)이며 우리는 그 자궁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크레이지 스톤>⁵⁷⁾

“충칭인들이 통상적으로 충칭 도시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은 지역음식인 휘귀(老火鍋), 현대 도시생활과 도시경관을 상징하는 해방비 상업권(解放碑商圈), 그리고 도시야경이다. 그러나 타 지역 대중들은 충칭을 항전시기 수도로서의 역사적 지위, ‘홍암(紅岩)’으로 상징되는 혁명 문화 등 중요한 역사문화적 특징을 떠올린다”⁵⁸⁾고 한다. 충칭시민과 타 지역 사람이 충칭에 대해 느끼는 감성적·심리적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타 지역 사람은 대중매체의 문화생산물 등을 통해 충칭의 도시 이미지를 전달받기에 대중적인 주선을 성향을 강하게 지닌다.

그러나, 1933년 <歧途>부터 최근까지 충칭에서 로케이션한 200여 편의 영화가 모두 충칭의 도시문화를 홍암문화, 항전문화, 음식문화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지는 않았다. 충칭은 특이한 자연경관, 도시경관, 문화경관 등으로 인해 많은 영상물의 배경으로 선택되었다. 비록 홍암문화를 충칭에 대한 타 지역 사람들의 통념으로 형성시키는 영화가 주류를 이루기는 했지만, 충칭 영화사는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들어 충칭의 도시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영화들이 증가하게 된 데에는 이런 비주류적인 시각이 이미 주류 영화 내부와 저류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들이 충칭에서 주목한 첫 번째는 자연경관이였다. “강이 종횡으로 흐르고, 산들이 둘러싸고, 안개가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특유한 충칭의 자연환경과 조각루(吊脚樓), 석판로(石板路) 등의 풍부한 역사문화가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 충칭은 국내외 많은 감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⁵⁹⁾ 영화 <창장도(長江圖)>(2016)⁶⁰⁾는 창장(長江) 주변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56) 「重庆被国务院明确定位为国际性综合交通枢纽」(2017年03月18日), <http://www.cq.gov.cn/today/news/2017/3/18/1490446.shtml> (검색일: 2018.10.10.)

57) 宁浩, <疯狂的石头>, 2006. “每当我从缆车上俯瞰这个城市的时候, 我就强烈地感觉到: 城市是母体, 而我们生活在她的子宫里面.”

58) 任洁, 「陪都抗战文化对重庆城市品牌定位的价值」, 『重庆交通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4期, 重庆交通大学, 2016.08, pp.26-27.

59) 张瀚祥, 「《重庆电影地图》发布 跟着大片再走一遍山城吧」, 『重庆商报』, 2016.03.10.

60) 杨超, <长江图>, 2016. 이 영화는 6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했다.

담았으며, 영화 <바산야위(巴山夜雨)>(1980)⁶¹⁾의 시작은 몇 차례의 번모를 거듭하여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된 충칭의 차오티엔먼을 롱테이크 기법으로 응시한다. 지세에 순응하여 대량으로 지어진 조각루(吊脚楼) 등은 지역의 특유한 건축유형으로서 충칭의 독특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이는 역사문화를 계승한 결과이자 사회풍속과 생활방식을 축적하고 농축시킨 결과물이라고 영화는 웅변한다. 충칭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의 정수가 이 프레임 속에서 전시된다.

충칭 영화가 관심을 기울인 두 번째는 충칭인의 기질, 충칭의 분위기였다. 충칭인의 솔직하고 열정적인 기운은 영화속에서 강력한 개성으로 표현되어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작용한다. 충칭인이 환호하고 많은 관중이 동원된 <화궈영웅(火锅英雄)>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리샤홍(李少红)의 <문(门)>(2007)은 안개 자욱하여 습기 차고 몽롱한 분위기를 가진 충칭의 오랜 거리를 통해 시공이 교차하는 오묘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충칭을 다층적이고 복잡한 현대 도시경관으로 묘사하는 작품들이 21C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순저우(孙周)의 <저우위의 기차(周渔的火车)>(2004), 왕샤오샤이(王小帅)의 <충칭블루스(日照重庆)>(2010), 닝하오(宁浩)의 <크레이지 스톤(疯狂的石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영화에서 현대도시 충칭의 상징적 경관으로 선택한 것은, 산과 물의 공존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 하에 구불구불 이어지는 돌층계 스빠티(十八梯), 창장삭도(长江索道), 경전철(轻轨) 그리고 높이의 기복이 있는 야경과 각자의 특성을 지닌 100여 개의 대교 등이었다.

이 세 가지 경향이 점차 부상(付上)하면서, 많은 관중을 동원한 <크레이지 스톤>부터 <화궈영웅>까지 충칭 영화들은 충칭의 도시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발산하기 시작했으며, 충칭인들 역시 도시 충칭의 역사적 함의와 인문정서에 주목하게 되었다. 더욱이, 충칭 영화들은 충칭 내부인의 일상에 주목하고 내부인의 시선을 차용하게 되었다.

직할시 승격 이후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충칭은 다원화된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억압되어 있던 물질적 욕망이 극명하게 표출되는 도시로 묘사되었다. 영화는 사회 전반의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풍조를 충칭이라는 도시경관 안에서 녹여내고 재현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감독은 충칭 출신인 장이바이(张一白)다. 그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好奇害死猫)>(2006)에서 퇴락한 충칭 원도심 하반구의 생활과 상반구의 해방비 상업권의 발전된 모습과 생활을 대조함으로써 도시인의 욕망, 계층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또 다른 영화 <비안(秘岸)>(2009)에서 오랜 공업도시였던 충칭이 신흥대도시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한 소년의 성장과 연결지어 담아냈다. 그는 현대도시의 화려한 면모보다는 사라져가는 충칭의 민간풍습을 재현했으며 도시화로 인한 도덕윤리와 가치관의 상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한, 그는 <从你的全世界路过>(2016)에서는 충칭의 거의 모든 특징적 경관을 카메라에 담았다. 자링강과 창장이 만나는 경관, 각기 다른 모양의 수많은 대교, 산기슭에 층층이 세워진 건축군들, 그리고 굽이굽이 이어진 석판로 골목에 숨겨진 유적들, 현대도시경관의 해방비 상업권, 충칭의 야경 등 전통적인 경관과 현대적인 경관이 어울려 구성된 충칭의 중층적인 경관을 담고 있다. 장이바이가 영화를 통해 재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름답게 재구성된 충칭의 문화경관을 통한 충칭인의 일상생활과 중층적인 현대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충칭

61) 吴永刚·吴贻弓, <巴山夜雨>, 1980.

인들 내부의 시선이다.

홍암정신과 항전문화라는 충칭의 도시 이미지는 문화정책사업에 의해 재구성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의 많은 충칭 영화들은 충칭의 자연경관, 도시경관, 문화경관 등에 주목하면서 역사적 장소에 대한 기억, 도시의 변화에 따른 충칭인의 일상생활과 그 변화양상, 그리고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내부자들의 시선을 담고있다.

도시 정체성은 역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의도적인 기획과 구성의 산물이기도 하다. 충칭의 문화생산물들 그 자체가 도시 충칭을 재구성·재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기획들의 공존과 그 변모 양상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충칭의 역사부호와 현대부호가 교차되는 양상, 충칭의 도시 정체성이 배제·생산·재발견되는 역동적인 양상을 대변하고 있다.

【참고문헌】

- 루이스 펄퍼드, 김영기 역, 『역사 속의 도시』, 명보문화사, 1990.
- 박홍규, 『메트로폴리탄 게릴라 - 박홍규의 루이스 펄퍼드 일기』, 도서출판 텍스트, 2010.
- 陈 桃, 「重塑白象街 激活尘封中重庆昔日CBD」, 『新浪房产』, 2015.04.23.
- 陈文玲, 「一带一路与长江经济带战略构想内涵与战略意义——兼论重庆在两大战略中的定位」, 『中国流通经济』, 第7期, 北京物资学院, 2016.07.
- 「重庆市城市总体规划(1996~2020)」, 『规划师』, 第9期, 广西华蓝设计(集团)有限公司, 2004.09.
- 「重庆团建议: 将重庆定位为丝绸之路经济带起点」, 『重庆与世界』, 第4期, 重庆市人民政府外事侨务办公室, 2014.04.
- 「重庆被国务院明确定位为国际性综合交通枢纽」, <http://www.cq.gov.cn/today/news/2017/3/18/1490446.shtml> (검색일: 2018.10.10.)
- 代金平·周兴茂·刘 晶, 「重庆的地域文化资源」, 『重庆邮电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6期, 重庆邮电大学, 2007.11.
- 邓黎明, 「王雨长篇小说《开埠》举行作品研讨会」, <http://www.chinawriter.com.cn/news/2015/2015-05-05/241340.html> (검색일: 2018.01.12.)
- 国务院, 「国务院发布《国务院关于推进重庆市统筹城乡改革和发展的若干意见》」, 『城市规划通讯』, 第3期, 中国城市规划设计研究院, 2009.02.
- 国务院, 「国务院批准重庆市城乡总体规划」, 『城市规划通讯』, 第20期, 中国城市规划设计研究院, 2011.10.
- 胡 攀·彭劲松, 「地域文化与重庆城市形象塑造」, 『西部论坛』, 第5期, 重庆工商大学, 2012.09.
- 况浩文, 『一双绣花鞋』, 重庆出版社, 2002.
- Jamesleng, 「电影《开罗宣言》背后隐藏的主旋律尴尬」, <http://ent.qq.com/a/20150815/020796.htm> (검색일: 2018.01.16.)
- 蒋 勇·刘 利·何 波, 「面向新时期的城市总体规划——以重庆市为例」, 『城市规划』, 第6期, 中国城市规划学会, 2007.06.
- 柯善北, 「“两江新区”不是梦《国务院关于推进重庆市统筹城乡改革和发展的若干意见》解读」, 『中华建设』, 第3期, 国家住房和城乡建设部政策研究中心, 2009.03.
- 力 云·夏小茜, 「白象街是谁在记忆中老去」, 『重庆与世界』, 第6期, 重庆市人民政府外事侨务办公室, 2006.0

6.

- 龙彬·屈仰,『2010年建筑环境科学与技术国际学术会议论文集』,东南大学出版社,2010.
- 罗渝,『失踪的上清寺』,重庆出版社,2008.
- 任洁,「陪都抗战文化对重庆城市品牌定位的价值」,『重庆交通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4期,重庆交通大学,2016.08.
- 任竞,「六十七年前想建怎样的重庆城——解读《陪都十年建设计划草案》」,『红岩春秋』,第4期,中共重庆市委党史研究室,2013.07.
- 石曼,『又见大后方影剧明星』,重庆出版社,2005.
- 市文化委,「重庆市出台《推进文化市场改革加快文化产业发展的意见》」, <http://www.huaxia.com/mlcq/zqsy/bysk/2014/12/4174142.html> (검색일: 2018.01.18.)
- 孙善齐编,『重睹大后方文坛芳华』,重庆出版社,2005.
- 孙志慧,『走进南方局』,重庆出版社,2005.
- 涂源·李晟,「自古就是开放之门 朝天门重庆国际化的起点」,『重庆晨报』,重庆日报报业集团,2016.05.19.
- 王硕,「中国确定一批重点影视作品等纪念抗战胜利70周年」, <http://www.chinanews.com/gn/2015/07-06/7386665.shtml> (검색일: 2018.01.16.)
- 王茵·鲁昱晖,「主旋律影片《开罗宣言》叙事分析」,『声屏世界』,第10期,江西省广播电视学会·江西人民广播电台,2016.10.
- 王雨,『开埠』,重庆出版社,2014.
- 肖江,「再现历史的重要时刻」,『文艺报』,中国作家协会,2015.08.31.
- 徐大文,「情感的纯真伦理的化道人性的高昂——评主旋律电视剧《雾都》」,『视听』,第6期,广西人民广播电台·广西电视台,2015.06.
- 徐康,『老风尚』,重庆出版社,2007.
- 易峥·陈治刚·何扬,「重庆市城市总体规划修编:回顾与思考」,『北京规划建设』,第1期,北京城市规划设计研究院,2005.01.
- 渝闻,「国务院审查并原则通过《重庆市城市总体规划》」,『城市规划通讯』,第8期,中国城市规划设计研究院,2007.04.
- 余俊汎,「王雨:用文学之笔历史地回顾历史」,『重庆作家网』,2017.07.21.
- 张綦·张锐·刘进平,「重庆城市品牌塑造战略及实施策略研究」,『科技管理研究』,第8期,广东省科学学与科技管理研究会,2008.08.
- 张瀚祥,「《重庆电影地图》发布 跟着大片再走一遍山城吧」,『重庆商报』,2016.03.10.
- 周昕欣·晓晖,「千秋白象街」,『重庆与世界』,第4期,重庆市人民政府外事侨务办公室,2005.04.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重庆, 抗战文化, 历史的场所, 开埠, 都市景观, 白象街		
	영문	Chongqing, Resistant Culture, Historical Place, Opening Port, Cityscape, Baixiangjie		
<div>A Study on Urban Culture in China: focused on the Chongqing</div> <div>Bark, Jeong-Hee</div> <p>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 aspect of the phase of socio-cultural transition that cities in China encounter these days by examining the strategy for restructuring urban identity promoted by each level of governments in China through cultural policy and plan for the cultural industry and the process in which cultural products of the city alternate or collide with each othe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hose Chongqing, a city, which experiences rapid urbanization and is called a sample of China at the time as the research subje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rban culture of Chongqing that experiences rapid urbanization, analyzing cultural products and cityscape in parallel by avoiding the division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cultural or between the physical landscape and the reproducible space and considering cultural texts important media that record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in the ci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ower and intent of the state operate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policies in the regions and cities of China by comparing the aspect in which the government's planning abilities are related and executed and the aspect in which the cultural products not included in the government's plans are related to the government's policy, with the urban planning and policy, cultural products and cityscape of Chongqing as texts.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city and the arrangement design of the buildings themselves are the specific expressions of cultural codes. The government's location in Chongqing and its change, the reconstitution of resistant culture that represents Chongqing city, the recall of the local culture of Chongqing as a historical place and the cultural landscape and urban culture of Chongqing reconstructed in visual media.</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박정희 / 朴貞姬 / Bark, Jeong-Hee		
	소 속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Em@il	barkxin@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1월 31일	심 사 일	2018년 02월 21일
	수 정 일	2018년 03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03월 23일